

“주한미군 장병·군무원, 한미 유대 강화 선순환 역할”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환송식서 강조 서욱 장관 “동맹 역사에 큰 발자취”

군복을 벗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관한 환송행사에서 “어떠한 잠재 적대 세력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절대로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닌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한미군 장병과 군무원은 한국에서 근무



로버트 에이브럼스(앞줄 왼쪽)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주한미군전우회(KDVA) 코리아센터 이서영(앞줄 오른쪽·예 육군소장) 회장으로부터 회원증을 전달받은 뒤 정승조(앞줄 가운데·예 육군대장)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VA 제공

하며 미국의 진가를 발휘하고 이들이 귀국할 때면 한국의 진가를 배워 돌아간다”며 “이런 선순환이 양국의 유대관계를 강화했

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과 카투사 등 1만 7000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

다”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같이 갑시다’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30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면서 “동맹의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에이브럼스 장군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KDVA)로부터 회원증을 전달 받았다. 또 평택시가 수여한 명예시민증과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준 한국이름 ‘우병수’가 적힌 족자도 선물받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새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폴 라카메라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의 미 의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가 끝나면 군복을 벗고 고향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갈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불철주야 경계작전 육군 장병에 ‘활력’ 비타민 선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불철주야 경계작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특별한 위문품이 전달됐다.

육군은 13일 “대응계약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변함없이 경계작전에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비타민 4만 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남영신 참모총장과 대응계약

윤재춘 대표이사, 이창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열었다. 위문품은 대응계약에서 출시한 고품질 기능성 비타민 제품으로 전방감시 초소(GP)·일반전초(GOP), 해·강안 부대에서 완전작전에 구슬땀을 흘리는 병사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윤 대표이사는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데

젊은 날의 귀한 시간을 내어준 청년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위문품이 장병들의 활기찬 군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대응계약에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한다”며 “보내준 성원에 힘입어 ‘더 강한·좋은 육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올해 두 번째…내달 14일부터 일주일간

국방부는 13일 “다음 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전반기 제2차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2차 취업박람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1차 취업박람회 참가장병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했다. 특히 전역예정간부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전역장병 채용관’을 확충하고, 진로설계에 관심이 많은 병사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역량 컨설팅’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이병 병사들에게도 박람회 참가 기회를 확대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회원가입 절차도 간소화해 더 많은 장병들이 편리하게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1차 온라인 취업박람회 결과도 발표했다. 1차 취업박람회 기간 중 홈페이지를 방문한 누적 장병 수는 1만2000여 명으로 이 중 207명의 장병이 윈스톱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박람회 참여기업에 온라인 방식으로 입사 지원했고, 온라인 쌍방향 프로그램에는 총 873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온라인 방식으로 최초 진행됐던 지난해 하반기 박람회 대비 기업은 약 1.5배(72→117개사), 온라인 쌍방향 프로그램 참가장병은 약 5배 증가(230→1080명), 전년 대비 참가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



13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화재대피훈련에서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방대와 용산소방서 요원들이 소방호스를 이용해 건물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비밀·총기반출 훈련까지…화재 시 행동절차 완벽 숙달

합참, 소방대와 합동 청사 대피훈련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청사 화재 발생에 대비해 행동절차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청사 내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피, 소화기·소화전을 이용한 초동

진화, 합동화재진화, 인명구조 훈련 순서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합참 근무자들은 물론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방대와 용산소방서 요원들도 참가했다. 합참은 앞서 지난달 내내 시설 정밀점검과 자체 발전기를 활용한 비상 전원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등 작전시설의 안

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화재 발생과 동시에 비밀·총기반출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성과를 더 끌어올렸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심폐소생술, 완강기·에어메트 사용요령 등에 대한 시범교육과 실습을 함께해 실천성을 높였다. 맹수열 기자

인사 ◆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원가관리과장 송재경 △기반 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 이정식

국방·안보의 모든 것 — KOOKBANG.dema.kr — 인터넷 kdd.dema.mnd.mil